

인천 송도에 2010년까지 세계적 IT허브 조성



정보통신부가 올해 지역별로 특화된 IT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동북아 IT허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정통부는 인천 송도에 오는 2010년까지 7,907억원을 들여 RFID/USN 관련 IT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설계·제조·시험시설과 경영·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세계 수준의 IT허브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서울 상암동 IT Complex(콘텐츠단지) 기초공사를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각 지방 권역별 지역산업의 특성을 살려 BT+NT, 내장형SW, 광통신 등의 산업과 IT가 융합된 지역 특화 IT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3월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북아 IT 허브 구축 사업을 비롯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목표인 '선진한국 진입'을 IT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IT839 전략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세상 구현을 추진,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과 지능기반사회(u-Korea)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으로 올해 IT인프라 개선과 함께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행정·지식DB 확충과 교통·물류시스템 개선사업 등에 4,171억원을 투입, 국가사회 전반의 운영시스템 혁신을 지원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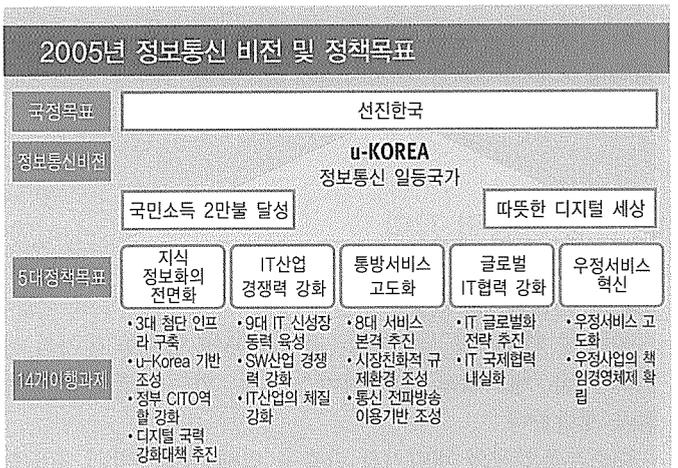
또한 올해를 소프트웨어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공개/내장형SW의 전략적 육성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한류의 선진국 시장 확산과 글로벌 공동제작 활성화 ▲공공DB의 상업적 활용 촉진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와이브로, 위성 및 지상파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W-CDMA, 지상파 DTV, VoIP 등 8대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시범 또는 본격 서비스 추진으로 국민생활

을 보다 편리하게 변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이날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정통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5대 정책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정책목표는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IT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전파방송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IT협력 강화 ▲우정서비스 혁신 등으로 그 안에 세부 이행과제가 담겨져 있다.



정통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3대 첨단 인프라 구축

광대역통합망사업은 2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영상전화와 주문형 인터넷콘텐츠(iCOD)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RFID/USN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정부통신망과 통신사업자 유선 상용망에 IPv6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u-Korea 기반 조성

u-Korea 전략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초고속망 미 보급 지역 24만 가구를 해소, 소외계층 정보이용시설 확대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2만 3,000대를 보급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동IP(인터넷 프로토콜)를 이용한 대량 스팸 발송 차단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선다.

정부 CITO 역할 '강화' = 정보통신 선도부처로서 IT기술과 BT·N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과 함께 오는 2007년까지 추진되는 2개의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중 올해는 제1센터를 구축하고 제2센터의 부지구입과 설계를 완료한다.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 추진

IT인프라 개선효과가 큰 행정·지식DB 확충과 교통·물류시스템 개선사업 등에 4,171억원을 투입해 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각종 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2,206억원, 주요 도로에 대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957억원,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에 1,00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IT산업 경쟁력 강화

9대 IT 신성장동력 육성

올해 중 와이브로 상용제품, 지상파DMB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기술,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로봇, 입는 컴퓨터 시제품 등을 개발한다.

중소부품업체의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부품개발시 공동으로 사용되는 설계 플랫폼을 개발 보급하고 국제 표준화기구 의장단에 국내 전문가 90명 진출을 추진한다.

금년을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SI), 온라인 게임, 모바일 콘텐츠, 지식정보서비스 등 소프트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고리로 육성한다.

패키지SW산업 육성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환경 조성 및 공개SW 시범사업 확대해 오는 2010년까지 국산화율을 40%로 높이며, SI산업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및 아키텍트급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100대기업을 1개에서 5개로 늘린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 수출의 75%가 편중돼 있는 온라인 게임과 콘텐츠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 공략과 글로벌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2.4%→5.0%로 확대하고 IT컨설팅 등 지식정보서비스 수요 창출과 공공DB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

IT산업의 체질 강화

1만7천여 IT 중소·벤처기업 경영현황을 DB로 구축하고

전문협의회를 통해 경영·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에 26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대구·원주·부산에 IT특화연구소를 설립해 IT와의 접목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43개소)를 활용해 지역별 IT인력을 재교육한다.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8대 서비스 본격 추진

올해안으로 와이브로 시험서비스 실시, 위성 및 지상파 DMB 본방송 실시, 지상파 DTV 시군지역 확대, 인터넷전화(VoIP) 이용자 100만명 확보 등을 추진한다.

시장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기회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각종 무선국 허가·검사 간소화 등의 규제를 개선한다.

통신·전파방송 이용기반 조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파역기능 방지 종합대책과 통신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지침 등을 마련한다.

글로벌 IT협력 강화

IT글로벌화 전략 추진

동북아 IT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서울 상암동 IT 콤플렉스(콘텐츠)외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7,907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지역에 RFID/USN산업에 특화된 IT허브를 구축한다.

송도 IT허브는 RFID/USN 관련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설계실·청정실·측정실·시험실 등을 갖추고 경영·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u-IT클러스터로 조성되며 글로벌 R&D센터와 IT기업 유치도 추진된다. 또 이미 추진중인 서울 상암동 IT Complex(콘텐츠)는 올해 기초공사를 완료한다.

각 지방 권역별로 BT+IT, 내장형 소프트웨어, 광통신 등 지역산업과 IT가 접목된 지역특화 IT클러스터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IT주재관 확대 등 IT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IT839 차세대 품목에 대한 해외로드쇼를 개최한다.

IT 국제협력 내실화

IT 지역협력을 한·중·일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중남미 등으로 넓히고 APEC 정상회의(11월 부산) 기간에 DMB, WiBro 등 IT839 핵심기술 및 서비스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우정서비스 혁신

우정서비스 고도화

우편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고객불만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우편물류 프로세스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351억원을 투입하며 비정규직 집배원 864명을 정규직화 한다.
우체국금융의 전자금융 이용률을 55%까지 확대하고 우체국보험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및 인터넷 공시를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통신사업특별회계(우정부문)를 '우편회계'와 '예금회계'로 분리해 각 사업별로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고 ERP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올해 혁신과제로 성과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고 'CEO 미션제'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른 평가결과는 보상체계와 연계해 승진, 주요 직위 보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6시그마 경영기법을 우정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기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올해는 그 1 단계로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한 재정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수출 전략산업 정부가 이끈다

올해를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가 SW를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은 패키지SW, SI, 디지털콘텐츠를 3대 수출전략 산업분야로 육성해 2007년 수출 34억달러를 달성한다는 '소프트웨어 수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SI 수출, 정부 간 협력으로 시장 확대

지난해 진흥원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SI 수출 분야에서 계약액 3억 9,300만달러, 입금액 2억 1,400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실적은 당초 목표로 했던 입금액 1억 5,000만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진흥원은 SI 분야의 해외 레퍼런스 구축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수요를 발굴하고 민관 합동으로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키로 했다.
각론에 들어가서 진흥원은 올해 12개 해외 SI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은 지난해 콜롬비아 경제협력회의에서 협의된 행정정보화사업(5,300만달러)이 꼽힌다.
중국, 동유럽, CIS 지역 진출 거점 확보가 용이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2개 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 파키스탄 조달정보화사업, 리투아니아 전자정부, 예멘 텔레센터 등에 정부 차원에서 접촉, 국내 업체의 수주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과제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양국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시, 오렌지카운티 등을 대상으로 발굴중이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위원회, 각 부처 해외진출 담당 사무관, 과장급으로 이뤄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들 핵심 인사들 간 정보 교환 촉진과 사례연구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SI 해외 진출 지원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SI 사업 관리지침도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올해 국내 정부 협력 차원의 SI 수출을 입금액 기준으로 3억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패키지 수출지역 다변화

지난해 진흥원은 지역별 타깃 시장 심층정보를 국내 545개 사에 제공하는 한편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76개 업체에 1억 7,600만달러 규모의 패키지·임베디드 SW 수출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브랜드화를 통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지역별·진출 단계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원서비스를 실행하고 서비스 수혜기업에 대해 파일럿 사업을 실행하는 등 패키지 SW 수출의 고도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유대원기자, 전자신문)